

119안심콜서비스, 이렇게 신청하세요!

①

PC/모바일에서 '119안심콜' 검색
*홈페이지: u119.nfa.go.kr

②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

③

인적사항·가입 유형·보호자 정보 입력

- 화재 : 주소, 대피 도우미, 보호자
- 구조 : 주소, 대피 도우미
- 구급 : 병력, 복용약물, 장애 여부 등

④

저장하면 즉시 등록 완료

* 대리 등록 가능 :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 모두 등록 가능

유의사항

- * 119안심콜서비스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119신고를 해야 119상황실 및 119출동대가 사전 등록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병력,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보호자)이 반드시 정보를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 * 등록된 개인정보는 긴급구조활동 상 참고 정보로 이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며 의료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나의 첫 번째 안심 보호자



혹시 모를 그 순간을 위해,
지금 딱 한 번만 찍어주세요

119안심콜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119안심콜서비스란?



119안심콜은 구급상황 발생 시, 미리 등록된 환자 정보(주소, 질환, 수술 이력, 복용약, 보호자 연락처 등)를 기반으로 119구급대가 환자의 특성과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해 맞춤형 응급처치와 빠른 병원이송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 구급 중심 119안심콜서비스를 화재, 구조 분야까지 확대

취약 요소



인구·가구 특성

주거 환경적 특성

환자의 질병 특성

나홀로 어린이
독거노인 등

침수 우려
노후 아파트 등

복용 약물,
장애 여부 등

119안심콜서비스



119 신고 시
소방대원 위험요소 사전 파악

등록된 정보를 기반,
신속하고 맞춤형 상황대응

보호자(대리인) 동시 알림 메시지 송출
(대피 유도 등 조력 지원)

119안심콜, 왜 필요할까요?



- 의식 저하 등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등록된 신고자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 침수 우려 지역, 노후 아파트 정보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여 재난 특성에 맞는 출동체제와 유관기관 협조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 고령자·중증질환자·장애인처럼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의 특성과 병력을 미리 파악해 맞춤 처치를 지원합니다.
-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보호자에게 즉시 문자로 상황이 자동 전송되어 대피 유도 등 조력을 통해 빠른 대응을 도울 수 있습니다.

누구나 119안심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중증질환자, 장애인, 홀로 어르신, 임신부와 나홀로 어린이, 침수 위험 등 재난 취약지역 거주자,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누구나 무료로 119안심콜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대상자 본인은 물론, 보호자·자녀·사회복지사 등 대리인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